

김치볼 우승소감

동의대학교 터틀파이터스 감독 김용희

먼저, 제22회 전한국미식축구챔피언전 (2016 김치볼) 경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강요식 대한미식축구협회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치볼에서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구 피닉스 신경창 감독님 및 선수단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운동장에서 함께 땀흘려주신 심판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치볼 우승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동의대학교 터틀파이터스는 1982년 창단한 이후,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김치볼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쁩니다. 2007년 김치볼에 처음 도전하여 쓰라린 패배를 하며 수차례 우승을 위해 도전을 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도전이 매번 실패로 끝나면 후회가 남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김치볼을 준비하면서도 역시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김치볼 우승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사람인지라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김치볼은 이벤트 대회니 큰 의미는 두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명분을 찾아서 위안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만들어 갈 선수들에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김치볼 챔피언이 못 될 수도 있다” 라고 강조했고, 선수단 모두의 동의를 거쳐 강도 높은 연습 스케줄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인팀은 많은 선수인원과 다양한 경기 경험, 그리고 대학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수경력이 길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대구 피닉스의 약점을 “스페셜팀” 이라고 정의하고, 약점 공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셜팀의 플레이에서 터치다운이 나왔고, 필드골도 성공하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잘 알아야 경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 피닉스 오픈스팀의 작전을 연구하여 대구 피닉스의 공격을 효율적, 효과적을 막아낼 수 있도록 디펜스의 포메이션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 선수들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공격 작전 위주로 오픈스팀의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연습장소인 동의대학교 운동장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는 “동의대 운동장을 여름과 겨울뿐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김치볼 경기를 준비하는 기간동안에는 한겨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둑해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30분부터 연습을 시작하여 약 3시간 40분간의 운동을 마치고, 컵라면과 김밥으로 요기를 해가며 새벽 1시 넘도록 팀 세미나하며 김치볼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코치진이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번 김치볼을 우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준 코치들과 선수, 스태프들에게 다시한번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믿고, 응원해 주시는 동의대학교 미식축구부 OB회와 후원회에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터틀파이터스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팀들은 매년 졸업생과 신입생들로 인하여 팀구성이 변경됩니다. 2017년에도 새롭게 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의대학교 터틀파이터스의 2017년 시즌 목표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식축구 역사에 새롭게 기록될 “타이거볼 4연패” 라는 기록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12.05.

동의대학교 터틀파이터스 감독 김용희